요약 **전도자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 **(2023년 11월 5일 주일 설교)** **제45주**

누가복음 6:1-6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따로 칠십인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전도를 보내십니다.(1-3절)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중요한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한 생명 초청 잔치(Who's your one?)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한 영혼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어떤 권면을 주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과 어떤 물건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신을 신지 말라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맡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방법, 지혜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둘째,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알고 전도하라

4절 후반부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사가 길기로 유명합니다. 끌어안고 축복을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전도의 사명이 지체할 수 없는 귀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로 결심했으며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올바른 태도로 전도하라

5절과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평안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게 됩니다. 화해가 바로, 평화 혹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자 안에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축복과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1/6(월)	11/7(화)	11/8(수)	11/9(목)	11/10(금)	11/11(토)	11/12(주일)
눅23-24	요1-3	요4-5	요6-7	요8-9	요10-11	요12-13

QT

이번 주 QT 말씀

11/6(월)	11/7(화)	11/8(수)	11/9(목)	11/10(금)	11/11(토)	11/12(주일)
잠 12:17-28	잠 13:1-12	잠 13:13-25	잠 14:1-16	잠 14:17-35	잠 15:1-15	잠 15:16-33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이번 한생명초청집회에 초대할 한 영혼이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

3. 오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할지 나누고 목장원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